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2007)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 5월 30일(월)부터 원서접수
 학부 : 6월 1일(수)부터 원서접수
 문의 : 02-944-5000(학부) / 5500(대학원)



최고 교수진
 최첨단 23,000㎡ 캠퍼스



방송국 수준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강의실



차이콥스키홀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4호선 2007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 2번 출구입니다.

장기 : 5,000원

SCU e야기

e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2016 Newsletter / Spring vol.32



스웨덴 명예영사에 임명된 이상균 이사장과 주한스웨덴대사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음악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사이버대학 최초로 음악학과(피아노전공)를 신설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저명 피아니스트의 1:1 레슨을 실시간으로 수강할 수 있어 음악 교육 분야에서도 여러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음악학과 나정혜 교수의 온라인 화상실습 레슨 모습을 담았습니다.



음악학과(피아노전공) 나정혜 교수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음악박사(DMA)

CONTENTS www.iscu.ac.kr

SCU Focus

- 04**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06** 2016학년도 전기 입학식
- 08** 2016학년도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 10** 이상균 이사장 인천·경기 지역 스웨덴 명예영사 임명
- 12**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총장단 본교 방문
- 14** 차이콥스키 콩쿠르 수상자 연맹 안드레이 셰르박 이사장 본교 방문

SCU Today

- 16** 제11회 경영인의 밤
- 18** 2016학년도 제16대 총학생회 출범식
- 20** 2015학년도 2학기 SCU 멘토링 평가회
- 21** 2016학년도 1학기 SCU 멘토링 결연식
- 22** 2016학년도 학과·전공별 춘계 MT
- 24** 2016학년도 총학생회 워크숍
- 25** 심리상담학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강

SCU People

- 26** 해외명사
- 28** 장학금 기부 교수 & 수혜 학생
- 30** 신입 교수
- 31** 신입보직 교수
- 32** 편입생
- 33** 재학생
- 34** 대학원생

SCU Story

- 36**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특강
- 37** 오승근 명지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 특강
- 38** 니콜라스 러프그렌 스웨덴 사회보험청 수석고문 특강
- 39** 김홍진 전 KT 사장 특강
- 40** 허묘연 총장 '세계 여성의 날' 여성대상 및 교육부장관상 수상
- 41** 김미주 교수, 노병호 주임 교육부장관상 수상
- 42** SCU 칼럼
- 43** 신·편입생을 위한 신년 문화행사
- 44** SCU 골프동아리 장학금 수여식
- 45**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업무협약



2016 Spring vol.32

발행일 2016년 5월
발행처 서울사이버대학교
편집주간 이향아 교수
편집위원 구희정, 김영민, 박병석, 임세희, 정상원, 한수미 교수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 944-5255
 세일포커스(주) (02) 2275-6894

- 46** SCU News
- 49** 교수동정



동문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길을 열다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석사 29명, 학사 1,996명 학위 수여, 개교 이래 학부 총 2만 5,086명, 대학원 282명 졸업생 배출
- 트릭아트 포토존 이벤트로 졸업생들에게 즐거운 추억 선사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통해 석사 29명, 학사 1,996명 등 총 2,025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고흐의 작품으로 트릭아트 포토존을 마련해 많은 졸업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졸업생들



트릭아트 포토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허묘연 총장과 졸업생

학교법인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상담심리학과 이수진 학우에게 상패를 수여한 이상균 이사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월 20일(토) 오후 2시에 본 교 A동 차이콥스키홀에서 2015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에서 석사 29명, 학사 1,996명 등 총 2,025명이 학위를 받았다. 2011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학부 2만 5,086명, 대학원 28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재학기간 동안 성실하게 학업에 전념해 우수한 성적으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친 학우들을 위한 시상식이 마련됐다. 학사 부문 이사장상은 상담심리학과 이수진 학우가 받았으며, 총장상은 사회복지전공 박지원 학우, 가족상담학과 박효진 학우, 보건행정학과 정소영 학우,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성진 학우,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김영세 학우가 수상했다. 특별

공로상은 사회복지전공 강원근 학우가, 공로상은 사회복지전공 김하진 학우, 노인복지전공 박순임 학우, 상담심리학과 정선옥 학우가 각각 수상했다. 석사 부문 대학원장상은 사회복지전공 김은지 학우, 상담심리전공 김경인 학우가 수상했으며, 우수논문상은 상담심리전공 정구경 학우가 수상했다. 허묘연 총장은 “졸업생들이 곧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자부심”이라는 말과 함께 “학업에 임했던 열정을 잊지 않고,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매년 졸업생들을 위해 캐리커처, 희망트리, 금메달 수여식, 웹툰 포토 행사 등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왔다. 올해 졸업식에서는 고흐가 자신의 작품인 해바라기를 액자 밖으로 건네는 트릭아트 포토존을 마련해 많은 졸업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졸업식은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해외 거주 졸업생과 가족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학생에서 동문으로 나아가는 희망찬 내일을 축하하며, 허묘연 총장 이하 교수진, 내빈들은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용기 있는 도전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다

2016학년도 전기 입학식

- 입학생들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희망화분' 나눔으로 이목 끌여
- 오리엔테이션으로 신·편입생들이 교수님과 친해지는 시간 가져

2016학년도 전기 입학식에서는 입학생들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행운목을 전달하는 '희망화분' 나눔 행사를 펼쳐 입학식의 의미를 새겼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월 27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본교 A동 차이콥스키홀에서 '2016학년도 전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은 입학식사, 입학선서, 장학증서 수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입학식 후에는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신·편입생들이 교수진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류 개그맨으로 떠오르는 '용알스'의 조준우 씨가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에 입학해 화제를 모았다. 용알스는 무언 코미디로 에든버러, 뮌헨국제 코미디페스티벌 등 우수 국제코미디페스티벌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며, 한국을 알리고 있는 개그맨 그룹이다. 이날 조준우 학우는 입학생 전체를 대표해 신입생 대표 선서를 했다. 최고령 입학생과 최연소 입학생의 나이 차이도 눈길을 끌었다. 문화예술경영학과 한재하(73세, 남) 학우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자연(17세, 여) 학우의 나이 차이는 무려 56살이다. 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세대를 아우르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임을 잘 보여준다. 허묘연 총장은 "용기 있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입학생들을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물심양면 지원할 것"이라며 "단순한 지식 쌓기가 아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소통하며 인간으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랑스러운 '저사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한편 이날 입학식에서는 허묘연 총장이 입학생들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행운목을 나눠 감동을 선사했다. 올해로 9회째 진행한 '희망화분' 나눔은 입학생들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만의 전통 행사다.



찬송가를 부르는 이상균 이사장



장학증서를 수여 중인 이상균 이사장



축하공연 중인 상명대학교 성악과 정익근 교수



신입생 대표진에게 '희망화분'을 전달하는 허묘연 총장과 교수진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과 내빈

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현장 속으로

2016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 학교 및 학생회 소개, 대학생활 안내 등 정보 제공
- 사이버학습 방법에 대한 특강으로 큰 호응 얻어







오리엔테이션 사회를 맡은 전광호 학생처장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던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월 30일(토) 본교 A동 차이 콤플렉스에서 예비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학교 및 학생회 소개, 대학생활 안내 등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학사제도 안내, 사이버 학습에 대한 특강, 지역별 만남의 시간, 축하공연, 학과·전공별 만남 등 늦은 시간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신·편입생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듣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전광호 학생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허묘연 총장은 “도전하는 학생들의 열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편입생도 학교를 믿고 즐겁게 학업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건넸다.

이어 학과 전공 교수진을 소개하는 시간과 2016학년도 총학생회와 20개 학과(전공) 및 18개 지역회장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재한 총학생회장은 “학생에게 힘이 되는 학생회가 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교수진 소개(왼쪽부터 이의신, 신지연, 나정혜, 권구순 교수)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

교무행정팀에서는 입학에서 졸업까지 알아둬야 할 학사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신·편입생들은 학교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았다. 특히 사회복지학부 정상원 교수의 사이버학습 방법에 대한 특강은 수업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과 학생포털 시연으로 이터닝 시스템 이해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어 사이버학습환경에서도 동문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본교 A동과 B동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지역별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과·전공별 만남의 시간을 통해 교수, 선배와의 만남의 시간도 마련됐다. 신·편입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 수강 노하우와 진로 선택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월 16일(화)까지 진행한 2016학년도 2차 모집에 합격한 신·편입생은 2월 27일(토) 입학식 행사 후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 각각 참석했다.

1. 수강신청

- 수강신청기간 및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완료
- 교육과정표 및 본인의 학업계획, 최저 이수학점 등을 고려
- 시험시간표 확인 후

2. 수업참여

- 강의수강
- 수시시험, 과제, 팀프로젝트 등 참여
- 중간/기말고사 응시
- 기타 참여도 항목 참여

3. 성적확인

- 강의평가 후 성적확인
- 성적이의신청 기간 내 필요시 성적 정정 요청

정상원 교수의 '사이버학습, 어떻게 할 것인가?'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상균 이사장이 인천·경기 지역 스웨덴 명예영사로 임명됐다. 3월 2일(수) 주한스웨덴대사관에서 개최된 임명식에서 안 회그룬드 주한스웨덴대사는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의 스웨덴 명예영사 임명장을 전달했다.

스웨덴은 한국과의 민간 교류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해 1992년 부산에 첫 스웨덴 명예영사관을 개설한 이후 대구, 대전, 광주 지역에 이어 지난해 인천, 홍천에 스웨덴 명예영사를 임명하여, 지금까지 총 6개의 스웨덴 명예영사관을 운영 중이다.

이로써 이상균 이사장은 (주)신일기업 대표이사, 한서문화예술협회 이사장, 신일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비롯해 인천·경기 지역 스웨덴 명예영사로 활동하게 된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환담의 시간



이상균 이사장의 임명을 축하하는 주한스웨덴대사



왼쪽부터 박현석 부총장, 허요연 총장, 대사관 관계자, 이상균 이사장, 주한스웨덴대사

한국과 스웨덴의 민간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다 이상균 이사장 인천·경기 지역 스웨덴 명예영사 임명

-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스웨덴 명예영사 임명장 받아
- 스웨덴과 한국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다짐



VI CARL GUSTAF
SVERIGES KONUNG



스웨덴 국왕과 왕비 초상화를 든 주한스웨덴대사



명예영사를 위한 기념품 전달식

선진 사이버교육 노하우 공유로 글로벌 예술인재 양성의 미래를 밝히다

-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총장단 본교 방문
- 미래지향적 학습 환경 구축의 중요성을 공유한 시간



RISD 총장단의 방문을 환영하는 기념촬영

세계적인 명문 예술대학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이하 RISD) 총장단이 3월 21일(월) 본교를 방문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015년 10월에도 로잔 소머슨(Rosanne Somerson) RISD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 초청만찬을 개최한 바가 있어 더욱 뜻깊은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번 방문에는 빌 크레이머(Bill Kramer) 부총장도 함께 동행했다.

소머슨 총장은 “지난 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세웅 명예이사장님 이하 서울사이버대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캠퍼스 투어를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최첨단 이러닝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향후 학교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RISD 총장단은 이세웅 명예이사장과 허모연 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차이콥스키홀, 강의실, 도서관, 카페테리아, 첨단 스튜디오 등 본교의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며 강의에서 문화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교육환경에 감탄했다. 특히 눈길을 끈 곳은 피아노 실습실과 첨단 스튜디오였다. 피아노 실습실의 1:1 온라인 강의 시스템은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세계 최정상급 피아니스트의 레슨을 받을 수 있어, 미래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 학습 환경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첨단 스튜디오에서는 크로마키, 전자칠판 등 다양한 장비를 직접 시연해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의 일정은 구리당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마무리 됐다. 방문을 마친 RISD 총장단은 “선진 사이버교육의 노하우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소머슨 총장에게 감사패를 건네는 이세웅 명예이사장



만찬을 즐기는 소머슨 총장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1877년에 설립된 RISD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욕의 파슨스 디자인스쿨과 함께 디자이너 육성의 양대산맥으로 꼽힌다. 2015년도에는 QS 세계대학랭킹 예술디자인 분야 3위, US News 대학원랭킹 순수예술 분야 2위에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RISD의 외국인 학생 중에는 한국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양측은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쉐르박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건네는 이세웅 명예이사장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영재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시스템의 공고한 협력을 약속하다

- 차이콥스키 콩쿠르 수상자 연맹 안드레이 쉘르박 이사장 본교 방문
- 예술 분야 온라인 강의에 대한 희망을 엿보는 시간

3월 22일(화)에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 수상자 연맹 (Association of Tchaikovsky Competition Stars)의 안드레이 쉘르박(Andrey Scherbak) 이사장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했다. 이 연맹은 17세 이하 영재 대상 경연대회인 영 뮤지션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주관하며, 콩쿠르는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힌다.

쉐르박 이사장은 이세웅 명예이사장을 비롯해 이은주 부총장, 음악학과 교수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러시아와 서울사이버대학교 간의 교류 및 협력관계를 갖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피아노전공 학습환경 안내



쉐르박 이사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기념촬영

사이버대학 최초로 음악학과를 설립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온·오프라인 이론 교육과 레슨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이끌고 있으며, 러시아 차이콥스키음악원과의 교류협약을 통해 글로벌 예술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캠퍼스의 다양한 곳을 둘러본 후, 온라인 피아노 교육을 위한 첨단 스튜디오와 연습실을 방문한 쉘르박 이사장은 “우수한 교수진에 온라인 교육의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 교육의 장을 열게 되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러시아에서도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요구와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원격 음악 강의나 온라인 레슨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기존 오프라인 교육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임을 밝혔다. 그에 비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피아노 교육은 온라인 교육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 방식으로 그 효과가 높으며 무척 고무적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방문을 마친 쉘르박 이사장은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비롯한 우수한 음악 교육의 전통을 살려 공고한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면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온라인 교육을 매개로 한 중심적인 역할 수행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쉘르박 이사장의 방문을 통해 양 기관은 더욱 현실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협력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프라인 만남 통해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다

제11회 경영인의 밤



<http://biz.iscu.ac.kr/business/index.asp>

학과의 주요일정과 동문들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영학과 홈페이지

- 경영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신·편입생 등 약 190여 명 참석
- 후배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 마련



'경영인의 밤' 행사에서 환영사를 건네는 정오동 총동문회장



왼쪽부터 전광호 학생처장, 고운승 교수, 강인남 경영학과 회장(제13대), 허모연 총장, 정오동 총동문회장, 송근중 동문회장

동문의 우애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

서울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동문 모임인 '경영인의 밤' 행사가 1월 16일(토)에 개최됐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은 '경영인의 밤' 행사는 재학생과 졸업생, 신·편입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문간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시간으로, 매년 초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날 '경영인의 밤' 행사는 식전행사와 본 행사인 1부, 제14대 회장선출이 진행된 2부, 화합의 장을 이룬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강인남 경영학과 회장(제13대)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15학년도의 경과보고 발표가 이어졌다. 허모연 총장과 정오동 총동문회장, 송근중 동문회장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건네며 자리를 빛냈다. 19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후배를 위한 장학금 수여와 전달식이 함께 진행돼 경영학과의 남다른 후배사랑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3대에서 제14대로 이어진 희망의 고리

제13대 학과회장인 강인남 동문은 이날 제14대 학과회장으로 선출된 박철진 학우에게 학과기를 전달하며 2016학년도에도 경영학과를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광호 학생처장은 제13대 학과회장으로 1년간 경영학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강인남 동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외에도 제13대 경영학과 임원진과 학년 대표가 공로패를 수여 받았으며, 경영학과 제13대 학생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김희숙 고문에게는 강인남 동문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제14대 학생회장 선출을 마친 후 제13대 경영학과 회장 강인남 동문의 이임사와 14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철진 학우의 취임사를 끝으로 2부 식순을 끝마쳤다. 이후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된 3부에서는 고운승 교수와 전광호 학생처장의 신년사와 함께 한해를 시작하며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받는 답소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경영학과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석한 동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경영학과 동문모임인 '경영인의 밤'은 재학생과 졸업생, 신·편입생이 서로간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행사로 제11회째 진행되고 있다.

배려와 화합으로
소통하는 총학을 꿈꾸다

2016학년도 제16대 총학생회 출범식

- 제16대 총학생회 회장 취임식 및 출범식 개최
- 믿고 찾는 총학, 소통하는 총학, 화합하는 총학이 될 것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총학기를 흔드는 조재한 총학생회 회장과 김민경 총학생회 행정감사



축사를 전하는
허묘연 총장



축사를 전하는
전광호 학생처장



격려사를 전하는
정오동 총동문회 회장



제16대 총학생회 회장으로
선출된 조재한 학우

학우와 교류하는 총학생회 다짐

서울사이버대학교 제16대 총학생회 출범식이 2월 27일 (토) 오전 11시 본교 A동에서 개최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허묘연 총장과 전광호 학생처장, 정오동 총동문회 회장, 역대 총학생회 회장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총학기 전달식으로 시작된 이번 총학생회는 허묘연 총장과 정오동 총동문회 회장, 김명조 구로구의원 의장, 이규민 한사련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집행부와 학과, 각 지역 회장을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제16대 총학생회는 총학의 기반을 다지고, 학우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2016학년도에 진행될 주요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졸업식, 입학식, 총운영위원회 워크숍, 스승의 날 행사, 연합 MT, 후기 졸업식, 한마음 체육대회, 송년회 등 2016학년도 전반의 행사를 이끌게 된다.

총학생회 취임식 및 출범식 개최

2015년 12월 7일부터 12월 14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제16대 총학생회 회장 선출 선거로 회장에는 조재한 학우가, 수석부회장에는 최진숙 학우가 당선됐다. 단일 후보로 진행한 이번 선거는 찬반투표로 결정됐다. 총 투표인 수 2,071명이 참여해 찬성 1,755명 (85%), 반대 316명 (15%)의 표를 얻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확정을 공고했다. 조재한 회장은 출범식 취임사를 통해 “믿고 찾는 총학, 소통하는 총학, 화합하는 총학이 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총학생회의 정상화를 이루고, 모든 학과 특강을 하나로 묶어 재학생이 시·공간의 제약없이 볼 수 있는 학습 콘텐츠를 추진할 것이며, 학습스튜디오와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장학금 지원제도를 효율화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16대 총학생회 임원진과 기념촬영



2015학년도 2학기 멘토링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남다른 열정과
봉사정신에 박수를!

2015학년도 2학기 SCU 멘토링 평가회

SCU 멘토링 평가회는
한 학기 동안의 멘토링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 진행된
멘토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수자들에 대한
공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난 멘토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상식 진행
- 39명에 멘토링 인증서 전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월 20일(토) 본교 A동 5층 강의실에서 2015학년도 2학기 멘토링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묘연 총장과 전광호 학생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멘토링 평가회는 한 학기 동안의 멘토링 활동을 종료하며, 2015학년도 2학기 멘토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수자들에 대한 시상식 진행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허묘연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멘토 인증서 수여식과 우수 멘토·우수 멘티에 대한 시상, 멘토링 포트폴리오 공모에 대한 시상, 멘토링 포트폴리오 공모 수상자의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멘토 인증서는 39명의 멘토를 대표하여 법무행정학과 신미옥 학우가 받았다. 이어 우수 멘토로 상담심리학과 박경운 학우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우수 멘티로는 사회복지전공 이영숙 학우가 수상했다. 이후 멘토링 포트폴리오 공모전에 출품한 8편의 공모작 가운데 4편의 우수작에 대한 시상과 공모작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허묘연 총장은 “남다른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돕고, 화합에 크게 기여한 멘토·멘티 여러분들 덕분에 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6학년도 1학기 멘토링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재학생 선·후배의
즐거운 대학생활을 위하여!

2016학년도 1학기 SCU 멘토링 결연식

SCU 멘토링 프로그램은
경험이 많은 선배 멘토가
적응이 필요한 후배 멘티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한 SCU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결연식을 통해 선·후배 간 상호 도움을 줄 것을 약속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월 27일(토) 본교 A동과 B동에서 멘토·멘티에 대한 결연식 및 개별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결연식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이해, 멘토링 에티켓, 멘토링 운영방법과 그 효과, 기본활동 안내, 시스템 사용 안내 등 앞으로 펼쳐질 멘토링 활동에 대한 심도 깊은 설명이 이어졌다. 재학생 선·후배 간의 원활하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위하여 본교에서 마련한 SCU 멘토링 프로그램은 경험이 많은 선배 멘토가 적응이 필요한 후배 멘티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뜻인 멘토는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학점이 3.0 이상이며, 활발한 상담을 통해 멘티들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주는 등, 동료 학습자로 활동할 준비가 되어있는 재학생이 선발된다. 이날 멘토링 결연식에 참석한 학생들은 각각 A동과 B동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본교 B동에서 그룹별 만남을 가졌다. 처음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된 멘토와 멘티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즐겁고 원활한 학교생활을 다짐했다. 결연식 이후부터는 자유로운 오프라인 모임이 꾸준히 이어질 계획이다.

2016학년도 학과·전공별 춘계

MT



■ 가족상담학과

가족상담학과는 3월 18일(금)에서 19일(토)까지, 1박 2일간 용인의 웨미리조트로 춘계 MT를 다녀왔다. 가족상담학과의 김요완 교수는 '내 인생의 여행 All Night'이라는 주제로 18일(금) 밤 10시부터 19일(토) 오전 7시까지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6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MT를 통해 친목을 다지는 것은 물론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경영학과

경영학과는 춘천의 하이리조트에서 4월 2일(토)에서 3일(일)까지, 1박 2일간 춘계 MT를 진행했다. '참여·소통'을 키워드로 150여 명의 학우가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영학과 임원진은 체육활동과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MT에 참석한 학우들과 우애를 다졌다. 이어진 불꽃놀이와 캠프파이어 시간에는 깊은 대화를 나누며 경영인의 화합을 다졌다.

2016학년도 새학기를 맞아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각 학과들이 춘계 MT를 진행했다. 학과·전공별로 진행된 이번 춘계 MT는 교수와 학우, 선배와 후배가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었다. 서사인이라는 이름 아래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시간으로, 유익하고 즐거웠던 순간들이 사진에 담겼다.



■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는 4월 9일(토)에서 10일(일)까지, 1박 2일간 춘계 MT를 다녀왔다. 이의신 학과장과 졸업생을 포함해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MT는 안성 레이크타운에서 진행됐다. 협동과 단결,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던 시간으로 조별 요리대전까지 펼쳐져 즐거움이 계속 이어졌다. 요리대전 후에는 모든 학우들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저녁시간을 가졌다.

■ 법무행정학과

법무행정학과는 청포대 송림수련원에서 4월 9일(토)에서 10일(일)까지, 1박 2일간 춘계 MT를 진행했다. 3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는 법률 및 행정상식에 대한 OX퀴즈가 마련되는 등 학업증진에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특히 서해안 청포대 해변의 낙조를 조망하고, 캠프파이어와 촛불의식을 진행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16학년도 총학생회 워크숍 총운영위원회 회의 통해 공약 실현 방안 마련

- 능동적인 총운영위원회를 위한 회칙 개정안 결의
- 제16대 총학생회의 공약 사항 전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3월 12일(토)부터 13일(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양양의 낙산 스위트호텔 대강당에서 총학생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조재한 총학생회장을 비롯하여 5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학과와 지역별 집행부의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학과·지역의 임원단과 집행부가 한 자리에 모여 2016학년도 총학생회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특히 제16대 총학생회 워크숍에서는 2016학년도 제2차 총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돼 총학생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안건의 토의가 이뤄졌다. 학과 회장단과 지역별 회장단, 집행부의 의견을 교류할 수 있어 더욱 의미있었던 이번 회의는, 전월 졸업식과 신·편입생 입학식에 대한 활동내용의 공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6학년도 안전에 대한 토의를 이어갔다.

또한 회의에서는 회칙 개정안 브리핑과 함께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됐으며, 과반인 39명이 찬성해 안건이 통과됐다. 이후 연합 MT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으며, 이 또한 38명의 찬성표를 얻어 연합 MT의 진행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이어진 자리에서 박인숙 재정국장의 1년 예산안 편성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다. 40명의 찬성표를 얻은 1년 예산안 또한 무사히 통과됐다.

이 외에도 제16대 공약 사항을 전달하여 공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였으며, 회비 납부 현황과 기타 학교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가 이어졌다. 총학생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과·지역 별 임원진과 집행부가 서로 대면하여 제16대 총학생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고민하는 발전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16대 총학생회 총운영위원회 워크숍



회칙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 중인 조재한 총학생회장



워크숍에 참석한 학과·지역별 임원진과 집행부의 기념촬영



2016학년도 제2차 총운영위원회 회의

심리상담학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강 사이코드라마 시연·실습 프로그램 열려

- 사이코드라마 분야의 대가 최윤미 교수 초청 특강
- 전국 지역학습관으로 생중계해 총 140여 명 참여

심리상담학부에서는 '2015 SCU 심리상담학부 - 체험, 상담의 현장 속으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월 16일(토) 본교 A동 국제회의실에서 심리상담학부 재학생 및 입학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사이코드라마 특강 및 시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가족상담학과 김요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특강 및 시연 프로그램은 사이코드라마 분야의 대가인 최윤미 교수를 초빙하여 이목을 끌었다. 최윤미 교수는 강원대학교 현직 교수로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특강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되는 동시에 전국 지역학습관으로 생중계해 서울캠퍼스에서 110여명, 지역 학습관에서 30여 명 등 총 140여 명의 심리상담학부 재학생 및 입학지원자들이 참여했다. 평소 심리상담학부 재학생들에게 관심이 높은 사이코드라마 시연·실습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심리상담학부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지역학습관에서 사이코드라마 특강을 시청하는 학생들



사이코드라마의 기초적 이해에 대해 설명하는 최윤미 교수



사이코드라마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요완, 최윤미 교수와 서울캠퍼스 학생들 기념촬영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국제개발협력사업, 라오스에서 꽃피다

솜키앗 파씨(Somkiat PHASY) 박사
라오스교육부 ICT국장

라오스 교육부 ICT국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부서는 라오스 내 초등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정보화에 대한 제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교수학습과 관련한 ICT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인 비엔티안을 비롯해서 16개 주(州)에 ICT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직원은 25명이고 전국 ICT센터를 포함하면 약 250명 정도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ICT활용증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수나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과 관련한 라오스의 ICT환경은 어떤가요?

교육정보화를 위한 ICT환경이 아직까지는 열악합니다. 1,586개의 초·중등학교 중 IT랩 시설을 갖춘 곳은 128개 즉, 8%수준이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학교는 28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약 50만 개의 인터넷회선(ADSL)만이 설치된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휴대폰 보급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2015년 기준으로 전 인구의 45%인 300만 명을 넘어섰고 인터넷 사용인구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ICT기술에 대한 높은 수용성과 관심이 고무적입니다.



권구순 교수와 인터뷰 중인 솜키앗 파씨 라오스교육부 ICT국장

국장님은 어떤 계기로 공직에 입문하신 건가요?

처음부터 공직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학부에서 정치학과 행정학을 공부했고 호주국립대에서 경제개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모스크바 소재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라오스 국립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이과대학장으로 재직 중, 당시 교육 ICT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교육부 차관님의 요청을 받고 공직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이론이 아닌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고 하나씩 이뤄나가는 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2014년부터 라오스 중등교육에서의 이러닝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오프라인 강의를 녹화해서 단순히 탑재하는 수준이었는데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후로 웹을 기반으로 하여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전문가들이, 저희 ICT센터의 교사들뿐만 아니라 기술 인력들을 양성해 준 것이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원격교육의 질이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양성된 전문가들을 '암탉(mother of chicken)'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국의 ICT센터들을 다니며 또 다른 전문가들을 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 자체보다 그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인력을 키운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10년 후 라오스의 교육정보화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주(州) 단위 뿐 아니라 지방소도시에도 ICT기반시설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원거리지역에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습활동에 있어서도 이러닝과 더불어 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 러닝이 시도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ICT분야의 인력이 늘어날 겁니다. 동시에 교사들의 정보화 능력도 향상되어 제반 교육행정이 전산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많이 달라져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방문한 소감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효과적인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보유한 전문가들의 기술력과 더불어 라오스의 교육발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에 종료되지만, 지속적으로 한국정부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지원과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보유한 전문가들의 기술력과 더불어 라오스의 교육발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장학금 기부를 통해 제자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음에 기쁨을 느낍니다

박숙희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석좌교수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박숙희 석좌교수는 매년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에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제자사랑을 실천하는 박숙희 석좌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쁩니다.

나눔을 실천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나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부임하여 제자들이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인해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매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기부한 장학금을 계기로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여 꿈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꿈을 이룬 학생들이 세대를 잇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눔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노인 요양을 돕고 노인이 보호 아동을 살피고, 아이들이 장애인과 더불어 편견없이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돌봄이고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로 제가 꿈꾸는 복지기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를 이루기 위해 본교의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특별한 나눔도 베풀고 없이 그저 서로 아주 작은 짐 하나를 덜어주는 것, 나눔은 그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의 순환이 일어날 때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훗날 꿈을 이루어 세대를 잇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즐겁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항상 제자들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리고, 신의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잇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괴테는 "기쁘게 일하고, 해 놓은 일에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듯합니다. 행복은 대단하거나 엄청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즐겁게 하고, 또 그 일의 결과에 기뻐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별것 아닌 고민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삶을 보내기 보다는, 주어진 것에 기쁨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서사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선미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전공 4학년

저는 지금 두 곳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학업을 지속하고 있기에 경제적 부담이 큼니다. 2015년 11월에 박숙희 교수님께서 주시는 장학금 관련 공고를 보게 되었고, 용기 내어 신청한 것이 좋은 결과로 돌아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다가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존경심도 더 생겼습니다.

장학금 덕에 등록금 부담이 줄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끔 피곤하여 졸음이 올 때 '이건 장학금으로 듣게 된 소중한 강의야!'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동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크게 내세울 것은 없지만 잠시나마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기에, 영어에 관련한 것이나 청소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 자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영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 3학기

의료기관 기획실에서 근무하며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학업과 생계 활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여유로운 자금융용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장학금을 타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마침 2016년도 1학기 등록 전 박숙희 교수님의 위탁장학금 공고를 접해 신청하게 되었고 교수님과 학교 측에서 그런 저의 사정을 잘 보살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계기로 학업에 더욱 열중해 성적장학금을 받아야겠다는 동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우들을 위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발판 삼아 성실하게 석사과정을 마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취득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교육복지 관련 사회적기업 운영이라는 목표에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또한 학부 학우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멘토링이나 취업상담 등의 도움 제공을 통해 나눔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무한한 가능성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윤소영 음악학과(피아노전공) 교수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음악박사(DMA)



교육시스템의 발전 가능성에 서사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육시스템에 대해 듣고 '이건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발전적인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정환경이나 생계를 위해 학업의 열정이 있어도 실행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사이버대학교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아노와 같은 예술 계통은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만나 그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배우려는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학생뿐 아니라 조금 부족하지만 배움의 열정이 있는 학생들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 학생들을 가르치며 저도 초심의 열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저 또한 학생들과 함께 계속해서 피아노 연주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협업을 통해 진정한 서사인이 되겠습니다.
선진 교육시스템인 원격 영상으로 학생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피아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기쁩니다. 2016학년도에 부임해 아직은 적응기간이라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앞으로 차차 적응하면서 여러 교수님들, 학생들과 융화되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윤소영 리사이틀 4명의 아티스트가 풀어내는 브람스

독주와 실내악 무대를 통해 꾸준히 관객과 교감하고 있는 윤소영 교수가 5월 8일(일) 저녁 8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성공적으로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주회는 브람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피아노와 비올라를 위한 소나타,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로 구성되어, 최정상급 연주자들인 바이올리니스트 Wayne Lin(서울시립교향악단 부악장), 비올리스트 서수민(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첼리스트 허철(강남대학교 교수)이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의 편리한 학습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학년도를 맞아 새로운 보직을 임명받은 교수 3인을 만나보았다. 도서관장 한수미 교수, 교수학습센터장 김영민 교수, 산학협력단장 김현진 교수가 그들이다. 새롭게 수행하게 될 보직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도서관장
한수미 교수

상담심리학과 한수미 교수가 도서관장으로 임명됐다. 도서관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자 각 학부 관련 전자도서관의 보급과 교육이념에 바탕을 둔 교양전자도서관의 원활한 보급을 목표로 한다. 한수미 교수는 각 학부 관련 학술논문·학위논문의 보급과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에 준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수학습센터장
김영민 교수

국제무역물류학과 학과장 김영민 교수가 교수학습센터장으로 임명됐다. 교수학습센터는 교수학습방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과 학습 만족도와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모형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영민 교수는 학습클리닉 운영과 교수법 워크숍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학습전략 가이드북 제작을 담당할 계획이다.



산학협력단장
김현진 교수

상담심리학과 김현진 교수가 산학협력단장으로 임명됐다. 산학협력단은 학교가 가진 우수한 연구인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사회적 공헌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김현진 교수는 연구 관리체제를 선진화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고 연구 결과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듣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듣는 즐거움을

조준우 사회복지전공 3학년 (2016학년도 편입)



‘옹알스’ 멤버 개그맨 조준우라고 합니다.

개그맨? 옹알스? 조준우? 누구지? 하실 거예요. 옹알스는 2007년 개그콘서트로 데뷔하여 지금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코미디팀입니다. 한국의 코미디팀이 외국에서 활동한다니 의아하시겠지만 저희는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님버벌(nonverbal)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팀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 어린아이의 옹알이를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저에게 딱 맞는 곳인 것 같아요.

10년 전 개그콘서트 선후배님들과 함께 복지관에 봉사 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말과 행동이 불편해 공연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어 사용 없이 마술, 마임, 저글링, 비트박스 등 보고 듣는 즐거움을 준비한 저희 팀에겐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무대를 마치고 내려와 팀원들과 이야기 했습니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 상대로 개그를 해보자고. 그렇게 해외로 눈을 돌려 지금은 14개국 25개 도시에서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시간이 길다보니 평소 관심이 있던 사회복지 분야를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뜻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처럼 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하라고 할 때 할 걸!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학교에는 저처럼 학업이 조금 늦으신 분들도 있고 힘든 상황에서 학업을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렵게 시작하신 만큼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나라에서 공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옹알스의 ‘듣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듣는 즐거움’이라는 모토로 전 세계에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깨끗한 웃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족상담학과의 ‘일산 스터디 모임’ 덕분에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최부현 가족상담학과 3학년 1학기
(일산 스터디 모임 회장)



스터디를 하며 행복의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가족상담학과의 ‘일산 스터디 모임’은 2010년 심도있는 학습 공동체로 만나 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결성된 모임입니다. 일산 주위에 거주하던 졸업생분들이 뜻을 모아 창립했으며, 한 달에 한 번이었던 모임이, 현재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공부할 수 있게 됐고, 온라인 학습자가 느낄 수 있는 외로움과 낯선 학습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해소해 주었습니다. 오프라인 스터디를 하며 행복의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인지 저희 스터디 모임의 구성원들 전부가 월요병이 사라지는 진귀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과 재학생, 신입생이 어우러져 끈끈한 동문애를 느낍니다.

저희 모임은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가진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상담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뭉치 어려운 졸업생 선배님들을 매주 만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스터디의 큰 장점입니다. 또한 같은 학과의 선배로서 신입생들이 온라인 학습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입생들도 중도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스터디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동문들의 끈끈한 우애, 이것이 저희 스터디가 몇 년간 모임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업에 도움이 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저희 스터디 모임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대비반이나, 대학원 진학 대비반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배운 주옥같은 과목들을 체계화시켜 학업에 도움이 되는 스터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스터디 모임은 그간 지속해 오던 토론을 통해 자존감을 형성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선후배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스터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친목 도모는 물론, 학업증진에 기여하는 원우회가 되겠습니다

김남섭 대학원우회 회장



학우들의 학습활동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은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공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실천적인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기에, 사회복지현장과 연계된 실천적이며 전문적인 지식 함양과 직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준비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우들의 학습활동을 돕고 학업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학습 환경의 특징 덕분에 다양한 원우들과 만날 수 있어 기쁩니다.

제가 현재 일하는 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시 학습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곳입니다. 때문에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 전에도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5학년도에 입학해 현재 3학기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36년간 공무원으로 일 해오면서 느꼈던 학업에 대한 갈증을 대학원 생활을 통해 풀고 있습니다. 함께 사회복지전공을 하는 원우들이 전국 각지에 있어 오프라인 만남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학습 환경의 특징을 살려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의 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학업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원우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원활한 대학원 생활과 학습을 돕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나 실습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에 한걸음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한 정기적 모임은 신입생활영어 및 춘계 MT와 스승의 날 행사, 학위수여식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원우회가 원우들의 친목을 도모해 함께 학업을 해나가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업증진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원우회에 학술연구부를 신설하고 학술발표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26일(토)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학술발표회 및 총회'를 시작으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특강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즐거운 만남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김미애 대학원우회 부회장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상담전문가로 거듭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전공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상담전문가 양성'에 교육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이러한 비전과 연계하여 다양한 세대와 문화가 공존하는 고령사회에서 개인의 적응과 심리적 문제해결에 초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상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희 원우회 또한 교수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원우들이 학업을 중도포기하지 않고 저출산·고령사회를 선도하는 상담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도 학업의 열정을 보이는 원우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이면서 강북구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학업을 하는 원우들 대부분이 저처럼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두 가지 일을 이어가며 원우회 모임에 참석해주시는 분들을 볼 때면 그 열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번 있는 오프라인 모임이지만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서로 의지할 수 있어 힘이 됩니다. 원우회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어 즐거운 대학원 생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갑니다.

저희 원우회는 원우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30일(토)부터 5월 1일(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춘계 MT는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사이버 학습 환경의 특성 상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는 시간이 많지 않다보니 원우들 간에 화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서로 얼굴을 익히고 단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더욱 즐거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선배가 조우하고 교수님들에게 대학원 생활에 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값진 기회를 통해 목표했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통섭적 인생의 권유’에 대한 심도 깊은 특강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 재학생의 인문학적 소양 강화를 위한 명사특강 릴레이 개최
- 영역을 넘나드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 전개

인생미학



특강을 마친 최재천 원장과 함께 기념촬영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월 11일(월) 오전 본교 캠퍼스 B동 대형 스튜디오에서 국립생태원 최재천 원장의 특강을 진행했다. ‘통섭적 인생의 권유’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은 자연의 일부로 더불어 사는 삶, 사물을 달리 보는 능력, 깨어 있는 마음으로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최재천 원장은 하버드대학교 생물학 박사 학위 취득 후, 현재 국립생태원 원장으로 역임 중이다. 그는 생물학자 겸 생태학자 이면서 ‘사회참여형 학자’로 불리며 이 시대의 특별한 지식인으로 꼽힌다. 저서로는 『대답』,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통섭의 식탁』 등이 있다. 이번 특강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올레 스카이라이프TV(KT), sky A&C가 공동 제작하는 sky A&C 인생미학 ‘예술(藝術)과 인문(人文)의 콜라보 강연’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명사특강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재학생의 인문학적 소양 강화를 위한 특강은 다양한 관점에서 삶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건문을 길러줘 학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강을 마친 오승근 교수와 함께 기념촬영

청소년복지전공, 미래전망과 진로탐색을 위한 ‘삼삼오오’ 외부 전문가 특강 오승근 명지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

- ‘삼삼오오’ 프로그램으로 1년에 4번 명사 초청 특강 개최
- 4월 16일(토) 오승근 교수의 청소년 자살예방 특강 열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전공에서는 미래전망과 진로탐색을 위한 외부전문가 특강인 ‘삼삼오오’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그 첫시간으로 명지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과 오승근 교수의 ‘자살 행동의 이해’에 대한 특강이 4월 16일(토)에 본교 B동 105호에서 열렸다.

이번 특강에는 사전 등록자를 비롯하여 현장 등록자까지 약 70여 명이 참석해 청소년복지 관련 심화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청소년복지전공 김윤나 교수의 소개로 특강을 시작한 오승근 교수는 초반부에 자살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했다. 그는 자살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자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수강자들이 자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살하는 원인을 파악해 자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7.8명이며 2014년 기준으로 자살이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할 만큼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승근 교수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통계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이 심각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자살자를 둘러싼 많은 요인들이 극도로 복잡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는 결과의 산물이 바로 자살”이라며 “자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정적인 판단을 하기 쉬운 청소년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을 제시할 인력양산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이 미래 인재를 위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복지전공에서 마련한 ‘삼삼오오’ 외부전문가 특강은 일년에 네 번 기별로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다음 특강은 5월 21일(토)에 비행 및 일탈 청소년에 관한 대책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이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효과
**니콜라스
러프그렌
스웨덴
사회보험청
수석고문 특강**

-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는 스웨덴의 가족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 사회복지학부의 주관으로 재학생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 이뤄



4월 5일(화) 본교 A동 2층 국제회의실에서 사회복지학부가 주관한 니콜라스 러프그렌(Niklas Löfgren) 스웨덴 사회보험청 수석고문의 특강이 '스웨덴의 가족정책이 일-가정양립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특강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스웨덴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다. 니콜라스 러프그렌 수석고문은 스웨덴의 가족정책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특강 초반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며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문제이지 여성이 만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정책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1960년대부터 오랜 시간

을 거쳐 가족정책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스웨덴은 1974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남녀 모두 쓸 수 있는 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한 아이당 480일(한 부모당 240일)을 쓸 수 있고, 여성의 경우 국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인 390일 동안 수입의 80%를 지급한다. 또 남성의 육아 휴직 신청이 늘지 않고 여성에게 편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5년부터 최소 30일은 남성이 육아휴직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정비했다. 육아휴직 외에도 부모보험과 보육비 지원, 임신부를 위한 급여 제도 등 스웨덴의 선진적인 가족정책이 소개됐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재학생들은 고령화사회를 맞아 시의적 주제인 가족정책에 대해 듣고 개선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창조적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과제
**김홍진
전 KT 사장
특강**

- 국가 경쟁력위해 창조적 조직 문화 형성돼야
- 창의, 협업, 소통, 융합이 필요한 시대에 맞는 인재가 되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4월 6일(수)에 '창조적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김홍진 전 KT 사장의 특강을 개최했다. 허묘연 총장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특강은 혁신적 교육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직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30여 명의 교직원들은 창조적 조직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되새겨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김홍진 전 KT 사장은 특강 초반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창조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2,163시간)이 OECD 평균 근로시간(1,770시간)을 훨씬 웃돌지만 근무시간에 비해 단위 생산량은 턱없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창조적 조직 문화가 형성

되기 위해서는 혁신적 사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 수장들의 마인드가 필수적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기 위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의인재가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진 전 KT 사장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꿈의 사회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요즘이야말로 창의, 협업, 소통, 융합이 필요한 시대라며, 교육의 새 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직원들이 창조적 조직 문화로 더욱 진보된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묘연 총장은 바쁜 와중에도 기꺼이 특강을 해주신 김홍진 전 KT사장과 자리에 참석한 교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2016 올해의 여성대상 수상



시상자로 나선 배우 손숙과 허묘연 총장

“행복한 가정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라는
수상의 의미를 새겨
앞으로도 정진하겠습니다.”

허묘연 총장이 3월 8일(화),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가 주최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2016 올해의 여성대상' 교육 부문을 수상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가 마련한 올해의 여성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가족해체 예방과 건강한 가족 가치 구현을 위해 애써온 여성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허묘연 총장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또한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중에게 부모교육과 가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쳐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6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상무와 허묘연 총장

“앞으로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역사회의 행복과 세계 이러닝
지식 나눔을 위해 책임 있는
대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2016년 2월 24일(수) 조선히otel에서 열린 '2016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은 우리 사회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우수기업과 기업인, 대학교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2년 학생과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SCU 봉사단을 창단해 어르신 무료 영정사진 촬영, 다문화가정 가족사진 촬영, 사랑의 연탄나눔, IT 지식나눔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미주 교수, 노병호 주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



보건행정학과 김미주 교수



경영기획팀 노병호 주임

서울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김미주 교수(좌)와 경영기획팀 노병호 주임(우)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표창장은 전체교직원회의에서 허묘연 총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김미주 교수는 학생건강증진 및 학교주변 유해시설 합동단속 분야 유공 표창 대상 후보자 66명에 대한 일반의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건강증진학교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관련 연구를 통해 학교보건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노병호 주임은 교육통계 및 정보공시 관련 분야 유공 표창 대상 후보자 106명에 대한 일반의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학 통계업무 총괄 및 정보공시 담당자로서 통계자료와 공시자료의 정확성 제고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금번 표창은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선정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해 일반의 공개검증 절차를 거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했다.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어쩌면 우리는 외딴섬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갈라파고스화 현상'에 대하여



이은주 사회복지학부 교수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사회학박사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과 여진으로 현재까지 66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정신적, 신체적 상흔을 입었다. 이후 남미 에콰도르 태평양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일어났으며, 아직도 일본, 동남아, 뉴질랜드 등 태평양 연안지역을 잇는 이른바 '불의 고리'에서 연달아 지진과 쓰나미가 경보 중이다. 일본은 자연재해가 잦고 섬나라가 갖는 지형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세계 시장의 표준화와는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 왔다. 재해에 대비해야 하므로 건물이나 자동차도 국제표준보다 더 높은 자체의 규격을 적용해 품질은 우수하나 다른 나라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경제의 갈라파고스화'라 부른다. 사전적 의미로 '갈라파고스화'는 어느 특정 시장과 관련된 기업들이 전 세계적 기준을 외면하고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그렇다면 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갈라파고스라는 말을 쓰는지 궁금할 것이다. 갈라파고스는 적도 주위 태평양의 19개 화산섬과 주변 암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에 등재된 거대 코끼리 거북이 서식하고 있다. 요즘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 현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의 전 대륙을 이동하면서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에렉투스 등을 무찌르고, 거대 동물들을 사냥하여 멸종시켰을 뿐만 아니라 작고 착한 동물들은 길들여 가축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 포악하고 잔인한 호모 사피엔스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대한 동물들은 자취를 감추고 지

구에는 작은 동물들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다 멀리 떨어진 갈라파고스까지는 이 무리들이 침투하지 않아 거대 코끼리 거북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학교에 오지 않고 혼자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 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갈라파고스화'되거나 '외딴섬에 홀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량의 정보와 소통과 사람에 시달려 혼자만의 사색과 자기성찰 및 자기개발의 시간을 갖고자 갈구하는 분들에게 자기고립은 적절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던 강인하고 체격도 좋았던 네안데르탈인이 호모 사피엔스에게 당했던 것처럼 외부 환경의 자극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들은 네안데르탈인보다 신체적으로 강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불리하고 약한 인간의 신체를 보완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들은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언어를 활용하여 집단을 형성할 줄 알았고 그 무리들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았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왕성하게 이동하면서 혼자서는 가능하지도 않은 거대 동물을 함께 사냥하여 몸보신을 하고,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집단 지성' 혹은 '집단 신화'를 이용하여 빙하의 강추위와 작열하는 무더위를 견디어 세계를 제패한 것이다. 이들의 '무리지음'과 '집단 소통'의 방식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원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갈라파고스제도 거대코끼리 거북은 살아남았지만 개인이든, 국가든, 학교든, 경제든 '갈라파고스화'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위협하고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다.

1) 나무위키에서 인용
2) 위키피디아에서 인용

신·편입생을 위한 신년 문화행사 뮤지컬 '레미제라블' 관람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월 23일(토)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공연된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재학생과 2016학년도 예비 신·편입생을 초대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뮤지컬 관람은 재학생들의 문화 생활을 지원하고, 사이버대학교 학우들 간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강추위 속에서도 뮤지컬을 보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

이완형 입학처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을 위해 연중 문화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뮤지컬도 즐기고, 오늘과 같은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우리 대학에 애정을 가지고 학습의욕을 고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뮤지컬계의 'BIG 4'로 손꼽히는 이 작품은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다. 19세기 프랑스 6월 봉기를 배경으로 하여 장발장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개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관람을 마친 한 학우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공연을 볼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우들을 위해 마련된 발권소



문화행사에 참석한 전광호 학생처장과 신·편입생들의 기념촬영



전통을 이어온
동문애로 실천한 후배 사랑
**제4회 SCU 골프동아리
장학금 수여식**

10년의 전통을 이어온
SCU 골프동아리가
앞으로도 꾸준한
장학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 17일(목) 본교 B동에서 SCU 골프동아리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총 3명으로 법무행정학과 이원국 학우, 국제무역물류학과 조경민 학우, 사회복지전공 임대원 학우이다. 이번 수여식의 시상은 SCU 골프동아리 제10대 회장 민동기 동문과 제8대 회장 김우현 동문이 맡았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허묘연 총장은 축사를 통해 “전통을 이어가며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해 온 SCU 골프동아리가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동문애를 발휘해 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전통을 꾸준히 이어가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민동기 회장은 “10년의 전통을 이어온 SCU 골프동아리가 앞으로도 꾸준한 장학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왼쪽부터 법무행정학과 이원국 학우, 국제무역물류학과 조경민 학우, 사회복지전공 임대원 학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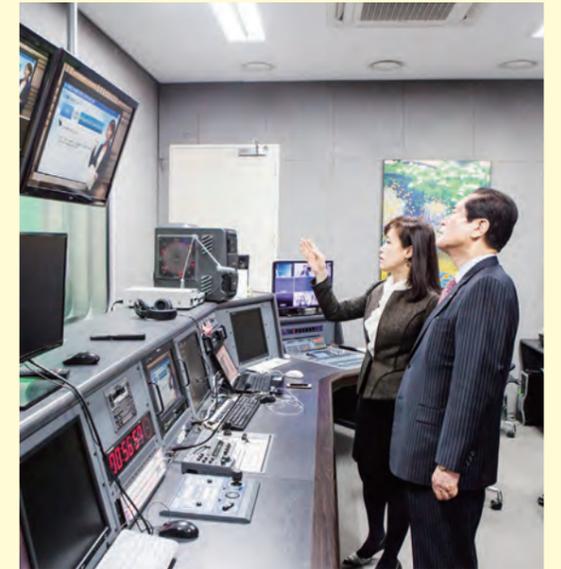
21세기 정보화·전문화 시대를
나란히 앞서 걷다

서울사이버대학교 – 한국문화원연합회 MOU 체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월 24일(수) 본교 연구동 대강의실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와 MOU 체결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21세기 정보화·전문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이론 및 기술 습득의 기회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단한 환담을 나눈 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협약식은 허묘연 총장과 이경동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이후 학교소개 동영상을 관람하고, MOU 협정서에 서명한 후 이를 교환하는 것으로 식순을 마쳤다.

양측의 관계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본교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며,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교류를 통해 가치 있는 상생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이경동 회장과 캠퍼스 투어를 마친 후 기념촬영

서사인
소식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임원 워크숍



▲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임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

서울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는 2016년 4월 2일(토)에서 3일(일)까지, 1박 2일간 정기총회 및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양평에 위치한 더 필란 펜션에서 열린 이번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임원 워크숍에는 전광호 학생처장을 비롯해 약 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총동문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감안해 지속적인 졸업생들의 친목 도모를 주도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힘쓰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정기총회 및 임원 워크숍에서 학교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정기모임을 마련하고 학교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별 신·편입생 환영회



▲ 서울 남부 지역의 신·편입생 환영회 기념촬영

2016학년도 새학기를 맞아 각 지역에서는 신·편입생을 위한 환영회가 마련됐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지역 모임은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신·편입생들이 진정한 서사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온라인 학습 환경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학습자의 어려운 점을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환영회에서는 친목 도모와 함께 신·편입생 환영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신·편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편입생을 위한 컴퓨터 특강



▲ 특강 중인 문화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

2월 2일(화) 서울사이버대학교 캠퍼스에서 신·편입생을 위한 컴퓨터 활용법 특강이 개최됐다. 이번 특강은 문화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가 컴퓨터 기본개념부터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서 활용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학교 수업과 관련된 교육도 병행해 신·편입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는 방법과 자격증안내센터 활용법, 교양수업 수강방법 등 초기 학교생활에 필요한 이러닝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문화
행사

프리마돈나 앙상블 관람



▲ 프리마돈나 앙상블을 관람한 교직원 기념촬영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난 2015년 12월 26일(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프리마돈나 앙상블' 제17회 정기 연주회를 무료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여성 성악가들로 구성된 '프리마돈나 앙상블' 제17회 정기 연주회는 푸치니·베르디의 오페라 아리아와 '강 건너 봄 오듯이' 등의 한국 가곡과 함께 다채롭게 꾸며졌다.

예술의전당 전시 관람



▲ 예술의전당 전시회를 관람한 교직원 기념촬영

교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권장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3월 15일(화)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린 '통일이!'展과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영원한 인간'展을 교직원에게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교에서 차량으로 이동한 60여 명의 교직원은 통일에 관한 서예와 캘리그래피 작품을 비롯해 인간을 주제로한 유물과 회화 작품을 감상했다.

이혜전 피아노 독주회 관람



▲ 박희웅 신일중학교 교감(맨좌측), 옥정 상담심리학과 교수(여섯번째), 최경호 신일고등학교 교장(맨우측)

3월 27일(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린 '이혜전 피아노 독주회'를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직원들이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직원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다양한 전시와 공연 관람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관람한 '이혜전 피아노 독주회'는 피아니스트 이혜전이 바흐·바흐-부조니·쇼팽의 레퍼토리로 무대를 꾸며 공연을 관람한 교직원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특히 이날 독주회에는 최경호 신일고등학교 교장과 박희웅 신일중학교 교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인천병무지청과 업무협약



▲ 인천병무지청 남재우 청장과 군교육지원센터 이정원 센터장(군경상담학과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는 3월 30일(수) 인천병무지청 대회의실에서 인천병무지청과 교육과정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병무지청은 복무부적응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2016년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 교육 프로그램(사회복무요원 힐링캠프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인천병무청에서 선별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는 심리 프로그램과 사회복무요원의 지도관들에게 수준높은 상담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수동정



권구순 교수

국제개발이해교육 관련 논문 게재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는 2016년 4월 30일 『국제개발협력연구』 제8권 제1호에 「성인대상 이라닝기반 국제개발 이해교육의 인지적·태도적 학습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주 저자) 게재하였다.



권금주 교수

노인복지 관련 논문 게재

노인복지전공 권금주 교수는 2016년 1월 31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에서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실태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주 저자) 게재하였다.



김동환 교수

오피스빌딩서비스 품질 관련 논문 게재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는 2015년 12월 18일 한국부동산학회의 『부동산학보』 제63집에 「오피스빌딩서비스 품질 차원구조와 측정모형의 우수성 비교 -1요인모형, 5요인모형 및 위계적 2차요인모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김영민 교수

물류 CSR 관련 논문 게재 및 발표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유통경영학회지』 제18권 제6호에 「물류기업의 CSR 활동이 인지된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12일에는 '2015년도 동계공동학술대회'에서 「물류프로세스에서 LSR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용희 교수

지역분석 관련 논문 게재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는 2015년 12월 23일 『부동산학보』 제63권에 「지가를 기준으로 한 부산권지역 분석연구(1980~2014)」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현아 교수

북한이탈주민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아 교수는 2016년 1월 30일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2권 제1호에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관한 메타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환 교수

공감능력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환 교수는 2015년 12월 31일 『인지행동치료』 제15권 제3호에 「사회불안과 공격자의식, 초점주의 역기능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박형원 교수

가족건강성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전공 박형원 교수는 2015년 9월 30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9호에서 「기혼 성인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영향요인: 원가족경험요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박태정 교수

노인학대 관련 논문 게재

복지시설경영전공 박태정 교수는 2016년 1월 31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에서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실태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공동 연구자) 게재하였다.



박기훈 교수

노인 노동력 관련 논문게재 및 학술발표

노인복지전공 박기훈 교수는 2016년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1호(통권104호)에서 「노인 노동력활용에서 나타나는 복지와 노동의 통합문제 연구: 일본 실버인재센터의 복지와 노동 통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2016년 4월 16일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 제5회 국제학술대회 및 Symposium'에서 「高齢者の労働力の活用方法研究 -日本の生がい就業を中心として」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교수동정



이성태 교수

문화콘텐츠 관련 논문 게재 및 작품 전시

문화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는 2015년 10월 10일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media and Ubiquitous Engineering』 학술지에 『Research about Minecraft as Interactive Program for 3D Virtual Digital Art』라는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2016년 3월 30일에 한국컴퓨터게임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에 『감성을 이용한 어린이용 기능성 게임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2016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사)한국디자인문화학회에서 주관하고 Vietnam Danang Architecture University에서 전시한 2016 Winter International Design Exhibition에서 『Droplets of Ginkgo Leaves』라는 제목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이서영 교수

노인복지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전공 이서영 교수는 2016년 1월 31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에서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학대 실태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교신 저자) 게재하였고, 2월에는 대한일어일문학회 학술지에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에 관한 한일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주 저자) 게재하였다.



임세희 교수

사회복지 관련 논문 게재

아동복지전공 임세희 교수는 2015년 12월 31일 『사회복지정책』 제42권 제4호에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결정요인: 지역 특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2016년 4월 29일(금)에는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주거비 과부담 가구 결정요인-지역별 특성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이우경 교수

SNS와 스트레스 관련 학술 발표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2016년 5월 1일 대한스트레스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SNS의 발달과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의신 교수

한국문화경제학회 이사 선임 및 자문위원 위촉

문화예술경영학과 이의신 교수는 2016년 1월 『한국문화경제학회』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대한적십자사』 홍보 자문위원, 『2016 의정부음악극축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향아 교수

색채디자인 관련 논문 게재 및 작품 전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2015년 12월 30일 『한국과학예술포럼』 제22권에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학습효과 증진을 위한 색채디자인 전략』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2016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사)한국디자인문화학회에서 주관한 『2016동계국제컨퍼런스』에서 『be blessed』라는 제목의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2015년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에서 주관한 국제단체전에서 『노랑』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사)한국여성시각디자인협회에서 주관한 국제단체전에서 『한국의 이미지』라는 제목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임태순 교수

금융 관련 논문 발표

금융보험학과 임태순 교수는 2016년 1월 6일 미국에서 개최된 『2016 Global Conference on Business and Finance』에서 『A Joint Decision-making Model to Determine the Optimal Level of Supply Chain Coordination Under Demand Uncertainty With Commitment-option Contracts』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정현주 교수

청소년 복지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전공 정현주 교수는 2015년 12월 31일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12호에 『학업중단 청소년 기숙형 대안캠프 모델에 관한 논의』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2016년 2월 10일 『학교사회복지』 제32권에서 『학교폭력 관련기관들의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경험 연구 - CYS-Net·학교·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차명희 교수

디자인 관련 논문 게재 및 작품 전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는 2015년 10월 『Research India Publications』 학술지에서 『Design of Cognitive Memory for Autonomous Virtual Characters Based on Information of Visual Sens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콘텐츠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2015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디지털디자인초대전』에서 『Cyber Energy』라는 제목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최혜라 교수

온라인 학습 관련 논문 발표

상담심리학과 최혜라 교수는 2015년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2015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충동성, 강박성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싱그러운 봄날, SCU가 제안하는 문화 나들이

프리다 칼로 & 디에고 리베라

전시



기간 : 2016. 5. 28 ~ 2016. 8. 28

시간 : 11:00 ~ 20:00

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혁명가이자 화가였던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 부부의 삶과 예술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린다. 지난해 '디에고 리베라 프라이드 오브 멕시코' 전시와 '프리다 칼로 -절망에서 피어난 천재 화가' 전시를 통해 각각 한국을 찾았던 부부의 전시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림 속 주제들이 각각의 사건을 나열하며 부부의 총체적인 삶과 예술을 스토리텔링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기억, 희망, 슬픔, 자기이해, 사랑 등 많은 작품들로 하여금 예술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상반되면서도 완벽한 만남에서 고통스러운 사랑으로 이어지기까지 기묘한 사랑 이야기를 서로의 작품을 통해 풀어 놓는다.

공연

심청



기간 : 2016. 6. 10 ~ 2016. 6.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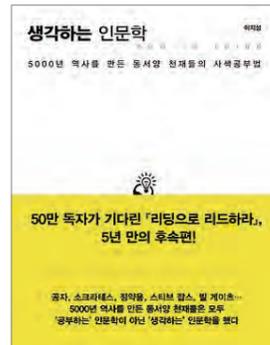
시간 : 평일(월요일 공연 없음) 20:00 / 주말 15:00, 19:00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전 세계 15개국 투어로 '한국 발레 역사축'의 성과를 이끌어낸 유니버설발레단의 '심청'이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 오른다. 토슈즈를 신은 발레단은 한국의 고전을 절정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해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러시아, 일본 등에서 기립박수의 행진을 이어왔다. 관객들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심청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 한국의 독창성과 정서가 살아 숨 쉬는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2막의 바다 속 용궁장면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군무와 완성도 높은 수중 씬, 3막의 달빛아래 국왕과 심청이 추는 로맨틱한 춤사위까지 한국적 아름다움을 서양의 발레문법에 제대로 녹여낸 작품이다.

도서

생각하는 인문학 - 5,000년 역사를 만든 동서양 천재들의 사색공부법



저자 이지성 | 출판사 차이

〈생각하는 인문학〉은 모두 6단계로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각', 새로운 지식을 채우는 '습득', 공부와 생각의 강력한 이유를 세우는 '입지', 답을 얻기 위해 구하는 '물음', 그가 아닌 나의 생각을 하는 단계인 '생각', 그리고 5,000년의 역사를 만든 동서양 천재들의 사색공부법을 배우는 '실천'이 그것이다. 세종대왕, 정약용,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그리고 현대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녔던 공통된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자.